일본2사, OLED TV 사업에서 철수

대형화 대응 실패로 UHD TV에 집중 … Japan Display에게 매각

Sony와 Panasonic이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 사업에서 철수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Sony와 Panasonic은 OLED 패널 대형화에 따른 생산비 인하 등이 난항을 겪자 UHD(Ultra High Definition) TV 등 액정 TV 개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출자한 Japan Display에게 OLED 사업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6월 매각에 기본 합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대형 OLED TV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게 됐다.

양사의 OLED 사업을 인수할 Japan Display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투입되는 중소형 OLED 패널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Sony와 Panasonic은 2012년 6월 OLED TV 공동 생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2013년 말 최종 철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5/26>